THAILAND

2025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2025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태국현대미술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꿈과사유

Dream and Reflection

2025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2025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꿈과 사유

태국현대미술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Dream and Reflection

HANSAE YES24 FOUNDATION

목차

인사말

백수미 | 04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전시감독의 글

꿈과 사유 / 다시 보는 태국의 열정과 지성 | 06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미술평론가

작가 소개

줄리 베이커 앤 서머 | 18
촌나팟 욕야이 | 22
완 찌라차이싸꾼 | 24
빤나팟 윤 | 28
땀 울릿 | 32
피차이 깨우위칫 | 36
나카린 빤야웡 | 40
차야퐁 짜루왓 | 44
콜라주칸토 | 48
임하타이 쑤왓타나씬 | 52
짜루파차 아차와싸밋 & 싸카린 크르언 | 54
낙롭 문마낫 | 56
씻웃 쁘랍리뿌 | 60
꾸써피야 니브싸 | 64
러끄릿 띠라와닛 | 66
밋 짜이 인 | 70
디썬 두앙다오 | 74
팟타라 짠르아차차이 | 76
탓스나이 쎄타쎄리 | 80
찟띠 까쎔낏와타나 | 82
아린 룽쨍 | 84
비 타끙 팟타노팟 | 86
르앙삭 아누왓위몬 | 90
우돔삭 끄릿싸나밋 | 92

CONTENTS

PREFACE

Soomi Baek | 05
Chairperson, Hansae Yes24 Foundation

DIRECTOR'S NOTE

Dream and Reflection / Rediscovering the Passion and Intellect of Thailand | 10

Ilho Park
Emeritus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rt Critic

ARTIST

Juli Baker & Summer | 18
Chonnapas Yokyai | 22
Wal Chirachaisakul | 24
Phannapast Yoon Taychamaythakool | 28
Tum Ulit | 32
Phichai Keawvichit | 36
Nakarin Punyawong | 40
Chayapong Charuvastr | 44
COLLAGECANTO | 48
Imhathai Suwattanasilp | 52
Jarupatcha Achavasmit & Sakarin Krue-On | 54
Nakrob Moonmanas | 56
Sitvut Prabripoo | 60
Kusofiyah Nibuesa | 64
Rirkrit Tiravanija | 66
Mit Jai Inn | 70
Disorn Duangdao | 74
Pattara Chanruechachai | 76
Thasnai Sethaseree | 80
Chitti Kasemkitvatana | 82
Arin Rungjang | 84
Be Takerng Pattanopas | 86
Ruangsak Anuwatwimon | 90
Udomsak Krisanamis | 92

인사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일곱 번째 국제문화교류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말레이시아를 품다〉 국제문화교류전 이후 다시 찾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아시아 미술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성심껏 준비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이전 전시회들과 달리 규모를 확대하여 더욱 야심 차게 기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문화교류전의 주인공은 태국입니다.
《태국 현대미술: 꿈과 사유》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태국 현대 미술 전시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국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를 조명합니다.
태국은 격동적인 근현대사를 겪는 과정 속에서도 자국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긍정적이고 유쾌한 국민성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완성해 왔습니다.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형태로 탄생한 작품들은 특유의 독창적인 색감과 상징적인 요소들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꿈'과 '사유'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태국 작가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태국 현대미술이 지닌 생명력과 창의성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2015년 〈Aura of Vietnam〉 전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매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미술작품을 한국에 소개해 왔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 작가의 작품과는 달리 동남아시아 작가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동남아시아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전을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지난 전시에도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전시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포함, 더욱 많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국제문화교류전을 포함하여 음악,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과 장학 사업 그리고 학술, 교육 지원 사업 등 폭 넓은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태국 현대미술: 꿈과 사유》 국제문화교류전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태국 현대미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백 수 미**

Preface

We would like to extend a warm and heartfelt welcome to all of you to the 7th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hosted by the Hansae Yes24 Foundation.
Indeed, we are very pleased to reconnect with our audiences once again, after the "Embracing Malaysia" exhibition in 2023.
As the Hansae Yes24 Foundation prepared for this year's exhibition, we strived to select and present exceptional Asian artworks, as in previous years. This year, however, we have taken a more ambitious approach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exhibition to provide a more immersive experience.
The spotlight of the 7th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falls on Thailand.
The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Dream and Reflection" exhibition marks our second event dedicated to Thai art, following the 2017 exhibition. This year, we are showcasing artworks by internationally acclaimed Thai artists alongside experimental pieces by emerging talents.
Amidst the challenging upheavals of its modern history, Thailand has cultivated and preserved a unique cultural identity rooted in unwavering patriotism, an optimistic spirit, and a humor-laced resilience that defies adversity. The works displayed in this exhibition-spanning painting, sculpture, installation, and media art-embody the Thai spirit through striking colors and symbolic narratives. As you explore the artistic visions of Thai creators, who have shaped their worlds through dream and reflection in an era of rapid transformation, we hope you will experience the vitality and creativity that define Thai contemporary art.
Since 2015, beginning with the "Aura of Vietnam" exhibition, the Hansae Yes24 Foundation has introduced Southeast Asian arts to Korean viewers, including works from Indonesia, Thailand, Myanmar,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Unlike European or Western art, however, Southeast Asian works remain relatively obscure and inaccessible in our everyday lives. It is with this in mind that the Foundation has continued its commitment to discovering and presenting the distinctive artistry of Southeast Asian creators through this annual exhibition. Past exhibitions have drawn over 3,000 visitors, and this year, with expanded venues and multidisciplinary works, we aspire to reach even broader audiences.
Beyond this exhibition, the Hansae Yes24 Foundation has been dedicated to fostering cultural exchange across Asia through diverse initiatives, including music, literature, scholarships,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s. We would like to humbly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interest in this regard.
Once again, we would like to extend our sincere gratitude to all who have joined us for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Dream and Reflection". May this exhibition offer an inspiring and memorable encounter with the beauty of Thai contemporary art.

Thank you very much.

April, 2025
Soomi Baek, Chairperson, Hansae Yes24 Foundation

THAILAND

태국현대미술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꿈과 사유

Dream and Reflection

다시 보는 태국의 열정과 지성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미술평론가)

1. 미술은 언어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화가) J.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는 런던에 안개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린 후 런던에 안개가 새로 생겼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다. 안개의 도시로 알려질 만큼 자주 안개에 싸여 있는 런던에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지냈고, 안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주의 깊게 바라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휘슬러의 안개에 둘러싸인 런던 풍경 그림을 보면서 새삼 안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안개가 낭만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예술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은 것, 때로는 애써서 외면하려한 것들을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 작품에 의해서 우리 삶의 지평이 넓혀진다는 점에서 예술은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는 언어이며, 예술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우리가 몰랐던 태국,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거나 무심히 지나쳤던 태국의 모습과 다른 진정한 태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그래서 태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과 정서를 담아낸 24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들은 태국의 정치, 사회, 문화의 단편들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인 은유의 방식으로 그들의 작품 안에 녹여 넣고 있다. 나는 2차례에 걸친 출장과 현지의 큐레이터들이나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그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2. 한세와 함께 한 동남아시아의 미술, 그리고 다시 태국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2015년 베트남, 2016년 인도네시아, 2017년 태국, 2018년 미얀마, 2019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술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 인한 휴지기를 거쳐 2023년 말레이시아 현대미술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개최된 미술 전시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국가들의 문화적 면모를 다른 관점에서 체험하고 문화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다. 그 첫 번째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이며 ASEAN의 대표적 국가인 태국을 선택했고, 국제적 위상 격상에 따른 태국의 현대 미술 작품들에 주목했다.
태국(泰國)이라는 명칭은 타이왕국(泰王國)의 준말이고, 태국어로는 쁘라텟 타이(자유의 땅이란 뜻)이며, 영어권에서는 타일랜드(Thailand)라고 표기한다.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국가로 7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방콕이다.
태국의 정치는 입헌군주제에 근거한 민주주의이다. 현 국왕은 2016년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을 계승한 마하 와치랄롱꼰이다. 왕실기이자 국왕기가 있고, 노란색은 국왕을 상징한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라마 9세로서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재위했다. 생존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국왕이었는데,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해 태국 국민들로부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태국은 주민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인 불교의 나라이자 사원의 나라이다. 불교가 1997년까지 태국의 국교였지만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국교를 해제했다. 그래도 아직은 생활 풍습이나 환경, 달력, 기념물 등에 불교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다. 국왕을 비롯하여 남자라면 일생에 한 번은 절에 들어가 삭발하며 3개월 정도의 수도 과정을 지내고 오는 것이 권장되기도 한다. 그래서 태국에 가면 아름다운 왕궁과 불교 사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태국의 사찰들은 '왓'이라고 하는데, 속세와 구분한다는 의미로 높은 벽으로 둘러싸고 내부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적 화려함으로 장식한다.
태국 미술은 신화와 종교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이 있고,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특히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이미지가 자연스레 작품에 녹아 있는 작품도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최근 들어 젊은 작가들에게서는 이러한 신화적, 종교적 성향이 덜 나타나기도 하는데, 태국 미술계에서 세대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인들은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 점에서 국제적인 미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미술 형식을 갖춰 나가고 있다. 방콕에서는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고,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들과 예술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태국 곳곳에 있다.

3. 열정과 지성의 예술 세계 – 꿈과 사유

이번 전시가 24명의 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꿈'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실험적인 경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뉴욕과 런던 등 해외 미술 중심지와 비엔날레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들의 지성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열정의 화가들이 펼치는 꿈의 세계

꿈과 열정의 세계를 파고드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신선하고 화사한 색채 감각과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 형식을 특징으로 한다. 큰 담론보다 작지만 절실한 개인적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들이 살아온 배경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도 한다.

줄리 베이커 앤 서머(Juli Baker & Summer)의 작품은 여름 태양처럼 활기차고 대담한 색채가 돋보인다. 그림에서 이상하고 거의 추상적으로 보이는,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벌리고 있는 여인의 신체를 간혹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때 페미니즘에 열정적이었던 그녀가 자유분방한 표현과 여성성의 해방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지이다.
촌나팟 욕야이(Chonnapas Yokyai)도 일상적인 삶을 사회적 프레임과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타내려 한다. 그런 작품이 때로는 상징적이며 초월적으로 때로는 초현실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녀가 작품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것보다 관람자들이 바라보고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해석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작품에 담아온 완 완 찌라차이싸꾼(Wal Chirachaisakul)은 장난감 사업을 열정적으로 펼쳤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런 탓인지 장난감 공장에서 희미하지만 반짝이는 빛을 발했던 금속 물질들에 둘러싸여 보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의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장난감 세계처럼 보이는 형식 안에서 자아와 사회의 이야기를 뒤섞고 엮어낸다.
빤나팟 윤(Phannapast Yoon Taychamaythakool)도 어릴 적의 기억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다. 특히 주변의 삶에서 만났던 동물 캐릭터들이나 꽃들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복잡한 이미지들의 혼합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계 태국인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문화적 도상들을 찾아낼 수 있다.
땀 울릿(Tum Ulit)은 어린 시절부터 만화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작업에서 큰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의 영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탐색해 보고 싶다는 욕구도 밝히고 있다. 만화 이미지 같은 작품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면적 모습과 미묘한 정서적 뉘앙스를 상기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로 보는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정서적으로 파고 드는 작품을 제

시하겠다는 뜻이다.
피차이 깨우위칫(Phichai Keawvichit)은 태국의 젊은 예술가들 중 재능 있는 사진가로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사진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십분 활용해서 색다른 형식으로 펼쳐왔는데,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그 중 하나인 미니멀리즘적인 건축 사진 연작이다. 역시 매체의 특성에 주목한 작품을 선보이는 화가로 나카린 빤야웡(Nakarin Punyawong)을 들 수 있다. 그는 회화 매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형식, 색상, 구성 등을 조정한 작품을 제시하고 그것들로 서로 다른 뉘앙스를 주는 경험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관람객들이 그의 작품에 묘사된 장면, 대상, 감정 등을 관조하면서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미니멀리즘적 구성과 파스텔 톤의 색상을 특징으로 하는 차야퐁 짜루왓(Chayapong Charuvastr)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그의 작업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공간의 광대함과 거기서 느끼는 인간 감정의 깊이 사이의 대비적 관계를 주제로 한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평온하고 고요한 정적의 느낌에 휩싸이기도 하고, 색채와 감정의 뉘앙스 속으로 빠져들면서 자기 성찰과 관조의 순간을 접하기도 한다.
미술 창작을 독학했고 콜라주칸토(COLLAGECANT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2007년부터 페이퍼 커트 작품을 선보여 왔다.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식물 드로잉, 미세한 이미지들, 레이스들 등을 소재로 해서 세심한 감각으로 다듬는 작품들을 전시해 왔다. 특히 'I am Home' 이라는 아주 평범한 제목으로 작품들을 묶어서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집과 갖는 정서와 이야기를 느끼고 연상하게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한다.
"인간이 만든 재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상상하며 작품을 만들어온 임하타이 쑤왓타나씬(Imhathai Suwattanasilp)는 이번에는 고릴라 머리 작품을 선보였다. 파이버 글래스, 머리카락, 물고기 비늘을 사용해서 만든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고릴라 머리가 바닥에 누워 있다. 머리카락이나 물고기 비늘처럼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자연적 재료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가 어렸을 적에 주변에서 보았던 고릴라에 대한 기억을 특징으로 한 작품이다. 해바라기 모양의 고릴라의 눈에서 우울함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는 자연에 재앙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텍스타일 예술가인 짜루파차 아차와싸밋 & 싸카린 크루언(Jarupatcha Achavasmit and Sakarin Krue–On)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 뜨개질, 바느질, 자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그를 섬유 예술의 길로 향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속 가능한 텍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페트병처럼 버려진 물질들을 실로 만들어 섬유예술의 직조 방식으로 짜낸 것이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내서 버려진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이다.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태국 문학을 전공한 낙롭 문마낫(Nakrob Moonmanas)은 지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을 찾아내고 작품 속에 병치시켜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면서 익숙하게 여겨 왔던 것들을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 이번 작품은 그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태국 북동부 지역 이산(Isaan)의 민간 설화를 소재로 한 것이다. 특히 그 설화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죽인 콩 카오 노이(Kong Khao Noi)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이산(Isaan) 지역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정치와 폭력을 이야기하려 한다.
씻웃 쁘랍리뿌(Sitvut Prabripoo)는 태국 북동부 난(Nan)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면서 작업하고 있다. 불교의 나라 작품답게 연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의 형식이 독특한데, 그가 전공한 색유리 테크닉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 안에 빛을 담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련의 이런 작품으로 자연 풍경과 생물체가 조화를 이는 세상, 자연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세상을 상기시키려 한다.
태국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이지만,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이런 배경에서 살아온 태국 남부 파타니(Pattani) 출신 작가 꾸써피야 니브싸(Kusofiyah Nibuesa)는 종이 부조 조각으로 그곳 사람들이 겪는 종교적, 인종적 긴장과 불안을 다루려 한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들의 현실적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슬림과 불교 신자라든지 중국계 등의 다양한 태국 국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일상적인 삶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종교적, 인종적으로 다양함을 내포한 태국의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로 향해야 함을 말하고 싶어 한다.

2) 중견 예술가들의 지성과 사유, 세계와 사회를 향한 발언

첫 번째 부류 작가들이 젊은 감각과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려 했다면, 두 번째 부류 작가들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이슈와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조형적 작업을 펼치는 중견 작가들이며, 오랫동안 나라 안팎의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온 주제를 작품으로 나타낸다.

뉴욕과 런던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활동해 온 러끄릿 띠라와닛(Rirkrit Tiravanija)은 태국 음식을 요리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공동체적 전통을 공유하는 참여적 설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작품 중 가십 기사가 가득한 태국 신문 위에 '자유는 흉내 낼 수 없다'는 문장을 페인팅한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 자유가 상처받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똑 같은 하늘 아래서 꿈을 꾸고 있는가." 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예술가들이 서구가 예술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곳에서 예술적 실천과 위치 찾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구와는 다른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히려 한다.
밋 짜이 인(Mit Jai Inn)의 추상 작품도 주목해 볼만한다. 그는 물감을 섞고 바르고 중첩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매체가 보이는 다양한 변화들을 실행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 어둠침침하고 형태가 없는 얼룩에서 파스텔 톤으로 공들여 만든 줄무늬, 고루 퍼지는 네온의 점처럼 보이는 것들에 이르기 까지 물감에 의한 유형학적인 변형과 분위기를 광범위하게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이미지가 그가 평생 겪어온 사회의 유형과 은유적으로 대비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디썬 두앙다오(Disorn Duangdao)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파괴 문제를 파고든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대기, 해양, 육지의 온난화를 일으키면서 지구상의 곳곳에서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구 표면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대시키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면서 환경 파괴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계심도 나타내려 한다.
팟타라 짠르아차차이(Pattara Chanruechachai)도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소재를 취하는데, 시간의 문제, 인간사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디썬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는 꽃이 시들고 사라져 가는 과정을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서 사라져 가는 미의 세계를 재현한다. 하지만 시들어 가는 것이 단지 소멸과 사라짐으로 그치지 않고 자연의 회복력과 끊임없는 갱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도 암시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사라져 간 것, 잊어 온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려 한다.
사회적인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탓스나이 쎄타쎄리(Thasnai Sethaser–ee)는 감시와 권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깜박이지 않는 무수한 눈은 가혹하고 매정한 시선을 의미하며, 국가와 사회의 감시를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이런 눈과 시선이 권력이란 이름으로 도처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적 존재를 불편하게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찟띠 까쎔낏와타나(Chitti Kasemkitvatana)의 비디오 및 설치 작품에서는 물리학과 철학의 만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우주의 공간, 시간,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을 갖고 철학, 불교 ,천문학, 물리학 등의 렌즈를 통한 물음을 탐구해 왔다. 특히 비디오 작품에서는 태국 북부, 인도, 중국, 티벳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신봉하는 시간을 관장하는 고대 신들을 묘사해서 문명을 비교 고찰한다.
아린 룽쨍(Arin Rungjang)은 동남아시아의 역사들, 상징들, 기억들이 뒤얽힌 설치 미술을 펼쳐 왔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형들이 개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해 왔다. 또 그는 외부에 덜 알려진 태국 역사의 양상들과 실행이 태국의 현재와 교차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다.
비 타끙 팟타노팟(Be Takerng Pattanopas)은 자신이 종양을 앓았던 경험과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작품에서 다룬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우주 생명체의 이야기로 진화시켜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작품에서는 빈 공간, 몸으로의 미세한 침입, 터널, 단일체 등의 상징과 유희의 혼성적인 형식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몸의 내부가 우주의 무한성을 상징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르앙삭 아누왓위몬(Ruangsak Anuwatwimon)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작품에 반영하려 한다. 이 작품에서는 신비에 싸인 정글에서 인간이 빠져 죽고 잠기는 것을 표현했다. 하지만 오늘날 실제 현실에서는 지구의 모든 구석에서 인간에 의해 숲이 줄어들고 있고, 자연의 진정한 본질이 상실되고 있다는 역설을 말하려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어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돔삭 끄릿싸나밋(Udomsak Krisanamis)은 오랫동안 신문지와 셀로판과 물감 등으로 매혹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콜라주 작업을 해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반복되고 교차되는 원형들, 뒤엉키고 겹쳐진 선들의 유희, 그 위에 자리 잡은 색채 얼룩들의 흐름 등과 같은 회화적 효과들이 두드러진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는 별 세계 풍경이나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재현했다면. 여기서는 세상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인간사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려 한다.

4. 이제는 관람객의 시간

나는 미술 작품을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작품 앞에서 그저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된 작품에 대한 비평이나 작가들 자신의 이야기에서 선택한 내용으로 글을 써서 작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글의 내용이 작품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관람객들 각자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 채워져야 한다. 미술 작품은 작가의 발언이지만, 전시장에 전시되는 순간 그 작품의 주인은 작가가 아닌 관람객이다. 이 글에서 내가 놓친 부분, 그 이상의 의미나 느낌을 읽어내고 가져가는 것은 이제 관람객의 몫이다.

THAILAND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Dream and Reflection

Rediscovering the Passion and Intellect of Thailand

Ilho Park

Emeritus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rt Critic

1. Art is a Language

British playwright Oscar Wilde once said, "There was no fog in London until J. Whistler painted it." Did Whistler's paintings somehow create fog in London? Of course, that's not what he meant. In London, a city so often enveloped in fog that it has earned its nickname, "City of Fog," people have long taken the fog for granted, hardly ever noticing it or examining it closely. At times, the fog was even seen as a nuisance. Yet when I encountered Whistler's paintings of a fog-enshrouded London, I became suddenly aware of its presence, and I began to wonder if perhaps there was something inherently romantic about the fog.

I believe this is what art is all about. Artists take what ordinary people often overlook or even intentionally avoid and present it through their work, compelling us to see with fresh eyes and experience new emotions and thoughts. In this way, art broadens the horizons of our lives, and in that sense, serves as a language that offers new experiences. It is from this very ability to reshape our perceptions that the true power of art emerges.

I curated this exhibition with that perspective in mind. I wanted to present an authentic side of Thailand, which differs from the one we never truly knew, only vaguely sensed, or passed by without a second thought. To that end, I selected works by 24 artists that capture thoughts and emotions about Thailand's past, present, and future. They weave elements of Thai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into their art-sometimes explicitly, sometimes through subtle metaphors. Through two business trips and conversations with local curators and artists, I was able to catch even a glimpse of that world.

2. Southeast Asian Art with Hansae, and Thailand Revisited

Dedicated to fostering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the Hansae Yes24 Foundation has hosted a series of art exhibitions featuring various South Asian countries: Vietnam in 2015, Indonesia in 2016, Thailand in 2017, Myanmar in 2018, and the Philippines in 2019. After a hiatus due to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from 2020 to 2022, the Foundation resumed its efforts with 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on Malaysia in 2023.

This year's exhibition builds upon the legacy of the past showcases, aiming to offer a fresh perspective on the cultural aspects of the previously featured countries while further straightening cultural cooperation. In this renewed initiative, Thailand, a cultural hub of Southeast Asia and a key ASEAN member, was chosen as the first country. The exhibition highlights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reflecting its growing impact on the global stage.

The name "Thailand" is a short form of the Kingdom of Thailand, and in Thai, it is called "Prathet Thai," which means "Land of Freedom." Situated between the Malay Peninsula and the Indochinese Peninsula, Thailand comprises 76 provinces, with Bangkok as its capital and largest city.

Thailand's political system is a democracy based on a constitutional monarchy. The current monarch, King Maha Vajiralongkorn, ascended the throne in 2016 following the passing of his father, King Bhumibol Adulyadej. Thailand has a royal flag which also serves as the king's flag, and the color yellow symbolizes the monarch. King Bhumibol Adulyadej, also known as Rama IX, reigned for an astounding 70 years, from 1946-the year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until 2016. During his lifetime, he was the longest-reigning monarch in the world. He played a crucial role as a mediator in times of political crisis, demonstrating overwhelming charisma. As a result, he earned the deep admiration of Thai people, who honored him with the title of "The Great King."

Thailand is a land of Buddhism and temples, with over 95% of its population practicing the faith. Although Buddhism was the official state religion until 1997, Thailand later embraced religious diversity by removing its national religion status. Nevertheless, Buddhist traditions remain deeply ingrained in daily life, customs, calendar, and even monuments. Customarily, Thai men, including the king, are encouraged to temporarily ordain as monks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shaving their heads and spending three months in monastic life. No wonder, this profound influence of Buddhism is also reflected in the stunningly beautiful royal palaces and temples across Thailand. Particularly, Thai temples, known as "wat," are designed to be separate from the secular world, enclosed by high walls and adorned with architectural grandeur that exemplifies the country's rich cultural heritage.

Thai art is heavily influenced by mythology and religion, particularly Buddhism. Given that over 95% of the population practices Buddhism, it is common to encounter artworks depicting images influenced by Buddhism. Recently, however, younger artists have displayed a noticeable shift away from these mythological and religious motifs, suggesting a rapid generational change in the Thai art scene.

Thai people are known for their openness to foreigners and foreign cultures. This receptiveness has contributed to the country's efforts to establish itself in the international art scene. Embracing modern and global artistic forms, Thailand is cultivating a contemporary art landscape that resonates beyond its borders. Bangkok hosts a biennale every two years, and there are various art programs and spaces throughout Thailand that have been formed based on a network of artists who have gained international fame and experience in art projects.

3. The Art Worlds of Passion and Intellect – Dream and Reflection

This exhibition presents the unique artistic voices of 24 prominent Thai artists, whose work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themes: Dream and Reflection. The first category, Dream, highlights the exceptional technical skills and experimental spirit of young artists who are passionately exploring new artistic expressions. Meanwhile, the Reflection section focuses on the intellectual depth of mid-career artists who have made their mark in global art hubs such as New York and London, as well as within the international biennale circuit.

1) The World of Dream Unfolded by Passionate Artists

The works of young artists delving into the world of dream and passion are characterized by fresh and vibrant color sensibilities as well as

diverse and experimental artistic styles. Rather than engaging with grand discourses, their art powerfully expresses personal, heartfelt perspectives, offering a unique individual view of reality shaped by their own experiences and knowledge.

The works of Juli Baker & Summer stand out with vibrant and bold colors, reminiscent of the summer sun. In her paintings, there are occasional depictions of a woman's body with limbs spread haphazardly in an odd, almost abstract manner. This visual motif stems from her past passion for feminism, symbolizing her embrace of free-spirited expression and the liberation of femininity.

Chonnapas Yokyai examines everyday life through the lens of social frameworks and feminist perspectives. Her works oscillate between symbolism, transcendence, and surrealism, intentionally leaving space for the viewer's person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ir experience rather than presenting her definitive answer.

Wal Chirachaisakul, who incorporates memories of his childhood into his art, was born and raised in a family passionate about their toy business. His early experiences, surrounded by the faint yet sparkling metallic materials in the toy factory, have become the foundation of his works. These elements often appear as central subjects, blending personal and societal stories within a format that evokes the playful, imaginative world of toys.

Phannapast Yoon Taychamaythakool also draws inspiration from her childhood memories. Notably, she is recognized for breathing life into illustrations of animal characters and flowers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While her work may initially appear as a complex blend of images, a closer look reveals cultural motifs shaped by her upbringing in a Thai-Chinese family.

Tum Ulit was captivated by comics from an early age, and he says this passion continues to underpin his artistic practice to date. He also expresses a strong desire to explore the deep-seated pain and sorrow that lie within the human soul. Through his comic-inspired imagery, he seeks to evoke the inner aspects and subtle emotional nuances contained in his work, ultimately offering visual experiences that deeply touch and resonate with the viewers.

Phichai Keawvichit is gaining attention as a talented photographer among young artists in Thailand. He fully utilizes the unique qualities of the photographic medium to develop innovative styles, which is well reflected in his minimalist architectural photography series showcased in this exhibition. Likewise, painter Nakarin Punyawong pays close attention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his medium. By skillfully manipulating the images, forms, colors, and compositions inherent in painting, he creates works that evoke a range of emotional nuances. This approach invites viewers to reflect on the scenes, objects, and emotions in his works, encouraging them to reconsider their connection to them.

Chayapong Charuvastr captivates the audience with his minimalist compositions and pastel tones. His work explores the contra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vastness of the spaces he depicts and the profound depth of human emotion they evoke. As a result, viewers often find themselves immersed in a serene, contemplative stillness, drawn into the delicate, nuanced interplay of colors and emotions that inspire moments of introspection and contemplation.

COLLAGECANTO, a self-taught artist, has been creating intricate paper-cut artworks since 2007. With a keen eye for the overlooked details of everyday life, she crafts pieces featuring plant drawings, delicate images, and lace, all refined with meticulous care. Her project, titled "I am Home," presents a series of works under a seemingly ordinary title that encourages viewers to connect with the emotions and memories tied to their own homes from diverse perspectives.

Imhathai Suwattanasilp, who has long explored the question, "What can arise from human-made disasters?" in her art, presents a striking work featuring a gorilla head in this exhibition. This massive, crescent-shaped gorilla head-made from unconventional natural materials such as fiberglass, hair, and fish scales-lies on the floor. This piece reflects her childhood memories of gorillas, which have since disappeared from her surroundings. The melancholic gaze in the gorilla's sunflower-shaped eyes conveys her belief that, while nature created us, our actions are wreaking havoc upon it.

Textile artist Jarupatcha Achavasmit attribute her creative journey to childhood memories of spending time with her grandmother on knitting, sewing, and embroidery. With a deep commitment to sustainable textiles, she seamlessly weaves her philosophy into her artistic practice. In her work, she transforms discarded materials, such as plastic bottles, into thread and weave them into textile artworks using traditional methods. By transforming what is conventionally dismissed as waste into intricate works of art, she not only revitalizes the discarded but also subverts entrenched perceptions of artistic value. Her work challenges conventional notions of artistic value, prompting viewers to reconsider them as well.

Nakrob Moonmanas, who majored in Thai literature, breathes new life into his work by identifying the familiar and the foreign and juxtaposing them in his work. His art invites viewers to re-examine the past, reconsidering what they once took for granted. In the exhibited piece, he draws on the folktales of Isaan, Thailand's northeastern region, stories that influenced his own childhood. His work revisits the haunting tale of Kong Khao Noi, a boy who killed his own mother, using it as a lens to explore the darker aspects of human nature. Additionally, he reflects on Isaan's historical struggles with political conflict and violence, using myth to examine the region's tumultuous past.

Sitvut Prabripoo was born in Nan, northeastern Thailand, where he continues to live and work as an artist. Deeply influenced by the Buddhist heritage of his homeland, his art draws attention with its depictions where lotus flowers and plants intertwine in perfect harmony. What sets his work apart is his unique approach-incorporating stained glass techniques, a skill he specialized in, to capture light and create an ethereal atmosphere. Through this series, he seeks to remind viewers of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nature and living being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natural world.

Although over 95% of Thailand's population practices Buddhism, most people in the southern region bordering Malaysia are Muslim. Against this backdrop, Kusofiyah Nibuesa , an artist from Pattani in southern Thailand, addresses the religious and ethnic tensions and anxieties experienced in that region through paper relief sculptures. However, instead of focusing on the real-world instability, her work displayed in this exhibition reimagines an everyday life where diverse Thai communities-Muslims, Buddhists, and those of Chinese descent-coexist peacefully. Through her art, she advocates for a harmonious multicultural society that embraces the rich religious and ethnic diversity of Thailand.

2) The Intellect and Reflection of Mid-Career Artists, Their Voices Towards the World and Society

While the first group of artists conveys their experiences as well as their emotions and reflections on their surroundings through youthful sensibilities and methods, the second group delves into more weighty themes such as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se mid-career artists, many of whom have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their sculptural and installation works, have long contemplat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al issues, translating their reflections and concerns into their artistic practices.

Rirkrit Tiravanija, who has worked across the globe, from New York to London, is best known for his participatory installations in which he cooks and shares Thai food with audiences, fostering a communal experience rooted in tradition. One of his works in this exhibition features the phrase "FREEDOM CANNOT BE SIMULATED," painted over a Thai newspaper filled with tabloid gossip, serving as a poignant reminder of how fragile and vulnerable freedom is in contemporary society. In another work, "DO WE DREAM UNDER THE SAME SKY?", Tiravanija explores the notion that, even as artists from diverse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carve out their own practices and identities in an art world dominated by Western hegemony, their practices remain rooted in identities distinct from the West.

Mit Jai Inn's abstract works also draw attention. The artist repeatedly blends, applies and layers paint, allowing the medium itself to undergo various transformations. His pieces span a wide range of typological shifts and atmospheres, from dark and amorphous stains to meticulously crafted pastel stripes and what appear to be evenly distributed neon dots. Moreover, the artist intends for these images to metaphorically contrast with the types of society he has experienced throughout his life.

Disorn Duangdao delves into one of today's most pressing global concern: environmental destruction. His works highlight the radical and extensive changes occurring across the planet due to human activities that caused atmospheric, oceanic, and terrestrial warming. By addressing the relentless rise in global temperatures, increasing carbon dioxide levels, and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cluding methane, his pieces serve as a stark warning about the ever-worsening stat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Pattara Chanruechachai also draws inspiration from nature, but his work differs from Disorn's in that it focuses on the passage of time and the transience of human existence. Through abstract depictions of flowers wilting and disappearing, he recreates the transient beauty of fading life. However, his works also imply that decay and disappearance is not merely an endpoint but part of a cycle of renewal and regeneration. This perspective invites the audience to view with fresh eyes things that

have disappeared or been forgotten in the flow of time.

Thasnai Sethaseree tackles themes of surveillance and power. His works depict countless, unblinking eyes, symbolizing an unrelenting and merciless gaze—an allegory for state and societal surveillance. It serves as a reminder that such eyes and gazes exist everywhere in the name of power, bringing discomfort and unease into individuals' lives and social existence.

Chitti Kasemkitvatana's video and installation works reveal an intersection between physics and philosophy. Driven by an enduring curiosity about space, time, and matter in the universe, he examines these concepts through the lenses of philosophy, Buddhism, astronomy, and physics. His video work, in particular, presents ancient deities associated with time from regions such as northern Thailand, India, China, and Tibet, offering a comparative reflection on civilization.

Arin Rungjang creates installations that intertwine the histories, symbols, and memories of Southeast Asia. Through his works, the artist speaks about the impact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ransformations on individuals' lives. His art also sheds light on lesser-known aspects of Thai history, focusing on how these historical elements intersect with and unfold in contemporary Thai society.

Be Takerng Pattanopas incorporates his personal experience of battling a tumor and dealing with complex health issues into his art. However, rather than confining his work to the realm of personal narrative, the artist evolves it into a broader discourse on cosmic life. His works feature motifs such as empty spaces, microscopic intrusions into the body, tunnels, and singular entities, creating a fusion of symbolic and playful elements. Underpinning his work is the idea that the human body's interior mirrors the boundlessness of the universe.

Ruangsak Anuwatwimon also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reflecting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human actions. His work featured in this exhibition depicts people drowning to death and disappearing into a mysterious jungle. This imagery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oday's reality, where forests are vanishing due to human encroachment, and the true essence of nature is being lost. His piece paradoxically underscores the consequences of humanity's exploitation of the environment.

Udomsak Krisanamis has long been working on collages that create fascinating patterns with newspapers, cellophane, and paint. His work shows distinct painterly effects by featuring repetitive and interlocking circular patterns, tangled and overlapping lines, and fluid color stains that are placed on top of the other patterns. While his earlier works depicted celestial landscapes or glittering urban scenes, this latest piece takes a more metaphorical approach, capturing the vibrant and multifaceted narratives of human existence unfolding in the world.

4. Now, It Is the Viewer's Time

I prefer to understand artworks by categorizing them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Simply standing in front of a piece and letting unfettered emotions and thoughts guide our perceptions can sometimes lead to misinterpretation. With this in mind, I have drawn upon selected critical perspectives and the artists' own narratives in preparing this exhibition preface, aiming to forge a closer conne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works on display.

However, that alone is not enough. While this text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approaching the artworks, the rest must be filled in by the viewers' own attitudes and perspectives to complete the experience. Art is born from the artist's expression, but once it enters the exhibition space, its ownership shifts—it belongs as much to the audience as it does to the artist. The meanings and emotions that I may have overlooked, or that extend beyond my words, are now the viewers' to discover and interpret.

ARTISTS

줄리 베이커 앤 서머
Juli Baker & Summer

촌나팟 욕야이
Chonnapas Yokyai

완 찌라차이싸꾼
Wal Chirachaisakul

빤나팟 윤
Phannapast Yoon Taychamaythakool

땀 울릿
Tum Ulit

피차이 깨우위칫
Phichai Keawvichit

나카린 빤야웡
Nakarin Punyawong

차야퐁 짜루왓
Chayapong Charuvastr

콜라주칸토
COLLAGECANTO

임하타이 쑤왓타나씬
Imhathai Suwattanasilp

짜루파차 아차와싸밋 & 싸카린 크르언
Jarupatcha Achavasmit & Sakarin Krue-On

낙롭 문마낫
Nakrob Moonmanas

씻웃 쁘랍리뿌
Sitvut Prabripoo

꾸써피야 니브싸
Kusofiyah Nibuesa

러끄릿 띠라와닛
Rirkrit Tiravanija

밋 짜이 인
Mit Jai Inn

디썬 두앙다오
Disorn Duangdao

팟타라 짠르아차차이
Pattara Chanruechachai

탓스나이 쎄타쎄리
Thasnai Sethaseree

찟띠 까쎔낏와타나
Chitti Kasemkitvatana

아린 룽쨍
Arin Rungjang

비 타끙 팟타노팟
Be Takerng Pattanopas

르앙삭 아누왓위몬
Ruangsak Anuwatwi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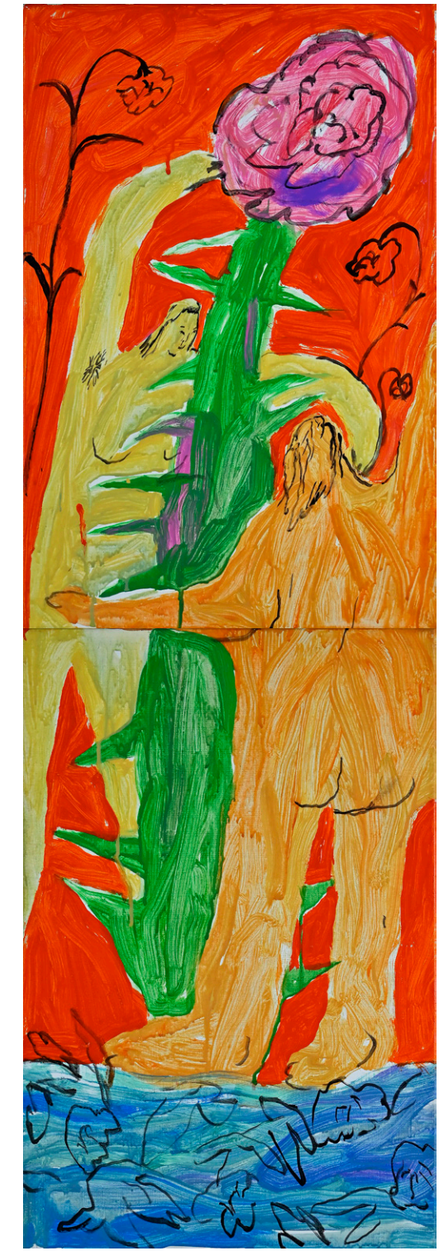
우돔삭 끄릿싸나밋
Udomsak Krisanamis

Juli Baker & Summer

줄리 베이커 앤 서머

Melancholy Songs
2021, Acrylic on canvas, 100 X 200cm

The Sunflower
2023, Acrylic on canvas, 220 X 140cm



Dear Tracey
2021, Acrylic on canvas, 40 X 90cm

Alle and My Film Cam
2017, Acrylic on canvas, 100 X 100cm

Aruse Full Of Thorns
2021, Acrylic on canvas, 120 X 40cm

Chonnapas Yokyai

촌나팟 욕야이

Super Splash
2024, Oil on canvas, 140 X 160cm

Degree of Human
2023, Oil on linen, 130 X 130cm

Leap at
2024, Oil on canvas, 100 X 145cm

Wal Chirachaisakul

완 찌라차이싸꾼

How Fragile We Are
2023, Oil on canvas, 95 X 65cm

Listen to Your Mentors
2024, Oil on canvas, 180 X 180cm

Everything Seems Slower
2024, Oil on canvas, 180 X 130cm

Roots of Awareness
2025, Acrylic on linen, 180 X 135cm

Phannapast Yoon Taychamaythakool

빤나팟 윤

Dream Journal

2024, Markers on watercolor paper

25 X 25cm (each), (Set of 3 pieces)

Curiosity & Discovery (come with sculpturedframe)
2024, Markers on watercolor paper, 43.1 X 25.7cm

Creating the Universe
2024, Markers on watercolor paper, 57 X 33cm

Self Portrait
2024, Markers on watercolor paper, 51 X 36cm

Inner Gold
2024, Markers on watercolor paper, 61 X 46cm

Forgotten Sisters
2024, Markers on watercolor paper, 51 X 36cm

Tum Ulit

땀 울릿

You Are The Warmest In the Coldest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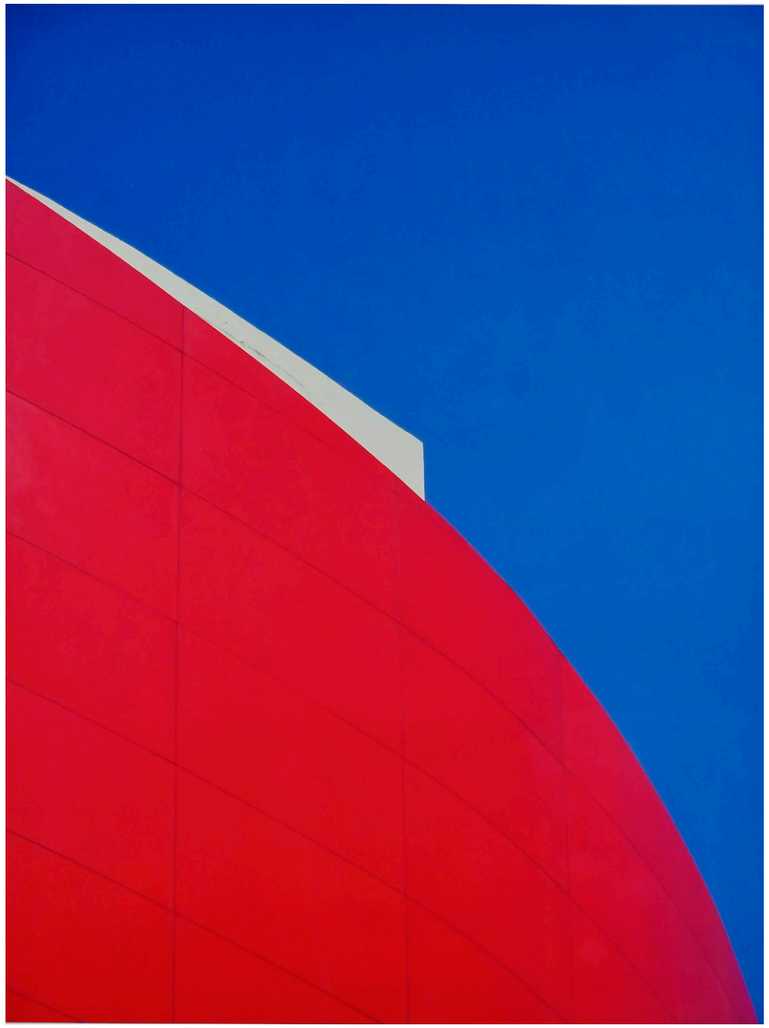
2024, Acrylic on canvas, 150 X 120cm

I Need Love and Compliments
2024, Acrylic on canvas, 120 X 100cm

Even Though I Know, I Pressed It Anyway
2024, Acrylic on canvas, 120 X 150cm

Phichai Keawvichit

피차이 깨우위칫



B1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B2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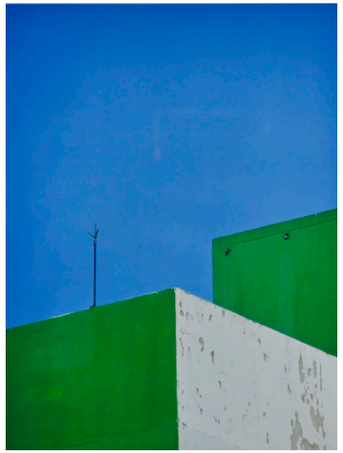
B3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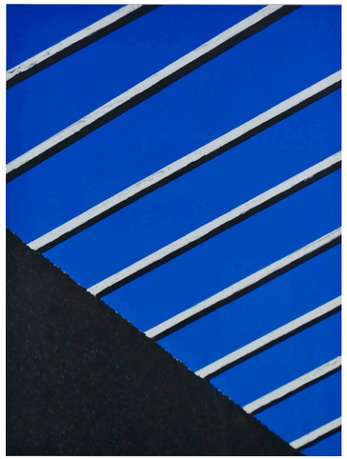
B4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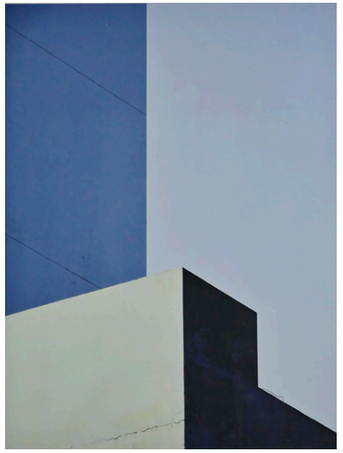
B5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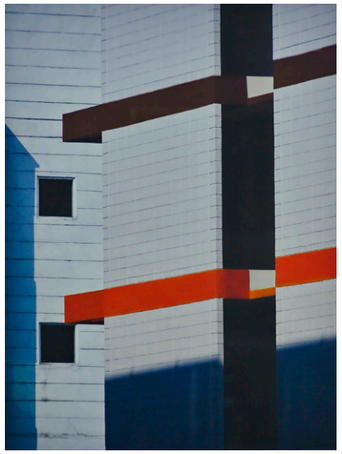
B6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B7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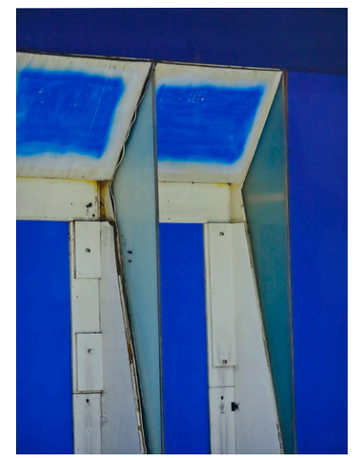


B9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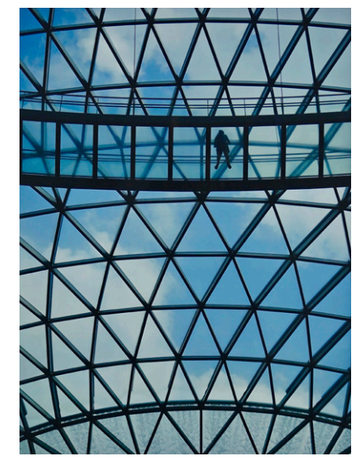
B8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B11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C1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B10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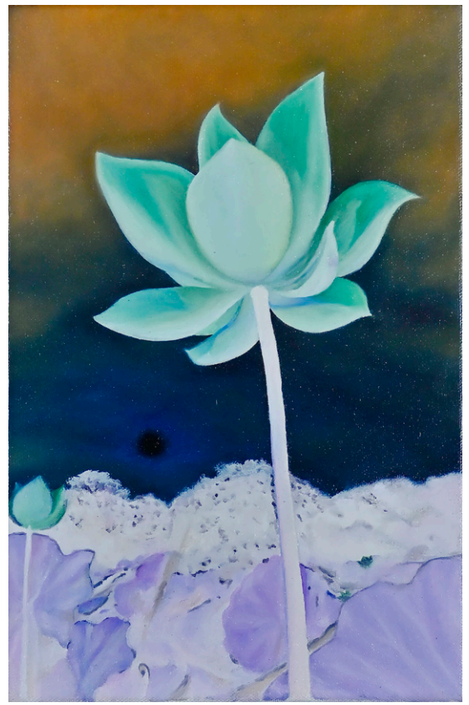


C9 (Edition of 5)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C10
2020, Photo printed on canvas with frame, 84 X 63cm

Nakarin Punyawong

나카린 빤야웡



Yang
2022, Inkjet-print with frame, 30 X 20cm

Yin
2022, Oil on canvas with frame, 30 X 20cm

IMG_Park02-Positive (Edition of 5 2AP)
2023, Inkjet-print with frame, 72 X 108cm

IMG Park01 -Positive (Edition of 5 2AP)
2023, Inkjet print on paper with frame (ILFORDOmnijet Matt 230 gsm), 72 X 108cm

Park02- Negative (Benchakitti)
2023, Oil on canvas with frame, 60.1 X 9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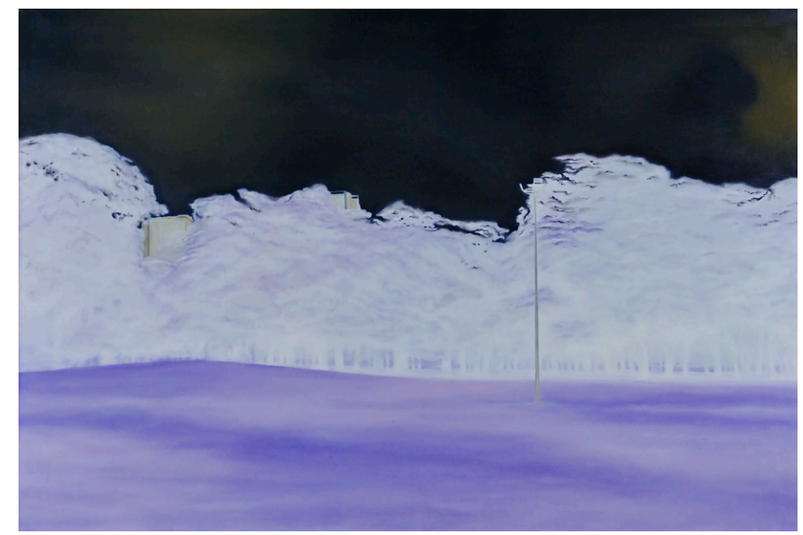
Park01- Negative (Lumpini)
2023, Oil on canvas with frame, 60.1 X 91.4cm

IMG_Park03-Positive (Edition of 5 2AP)
2023, Inkjet print on paper with frame, 72 X 108cm

Park03-Negative (Buak Hat)
2023, Oil on canvas with frame, 60.1 X 91.4cm

IMG_Park04-Positive (Edition of 5 2AP)
2023, Inkjet print on paper with frame, 72 X 108cm

Park04-Negative (Wachirabe nchathat)
2023, Oil on canvas with frame, 60.1 X 91.4cm



Chayapong Charuvastr

차야퐁 짜루왓

Untitled 1

2025, Acrylic on canvas, 160 x 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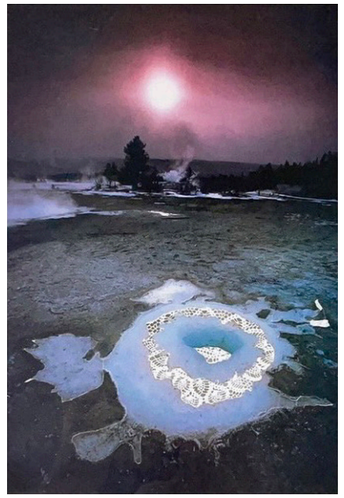
Untitled 2
2025, Acrylic on canvas, 180 x 160cm

COLLAGECANTO

콜라주칸토

Layers of Home

2024, Papercutting and paper knitting, 195 x 143 x 143cm



Lacy Geyser
2024, Papercutting, 28 x 21cm

Lacy Spring
2024, Papercutting, 28 x 21cm

Seascape
2024, Papercutting, 42 x 60cm

Gardenscape
2024, Papercutting, 42 x 60cm

Lacy Pool
2024, Papercutting, 39,5 x 33cm

Imhathai Suwattanasilp

임하타이 쑤왓타나씬

The Crescent Ape

2024, Fiberglass, human hair, fish scale, 182 x 92 x 1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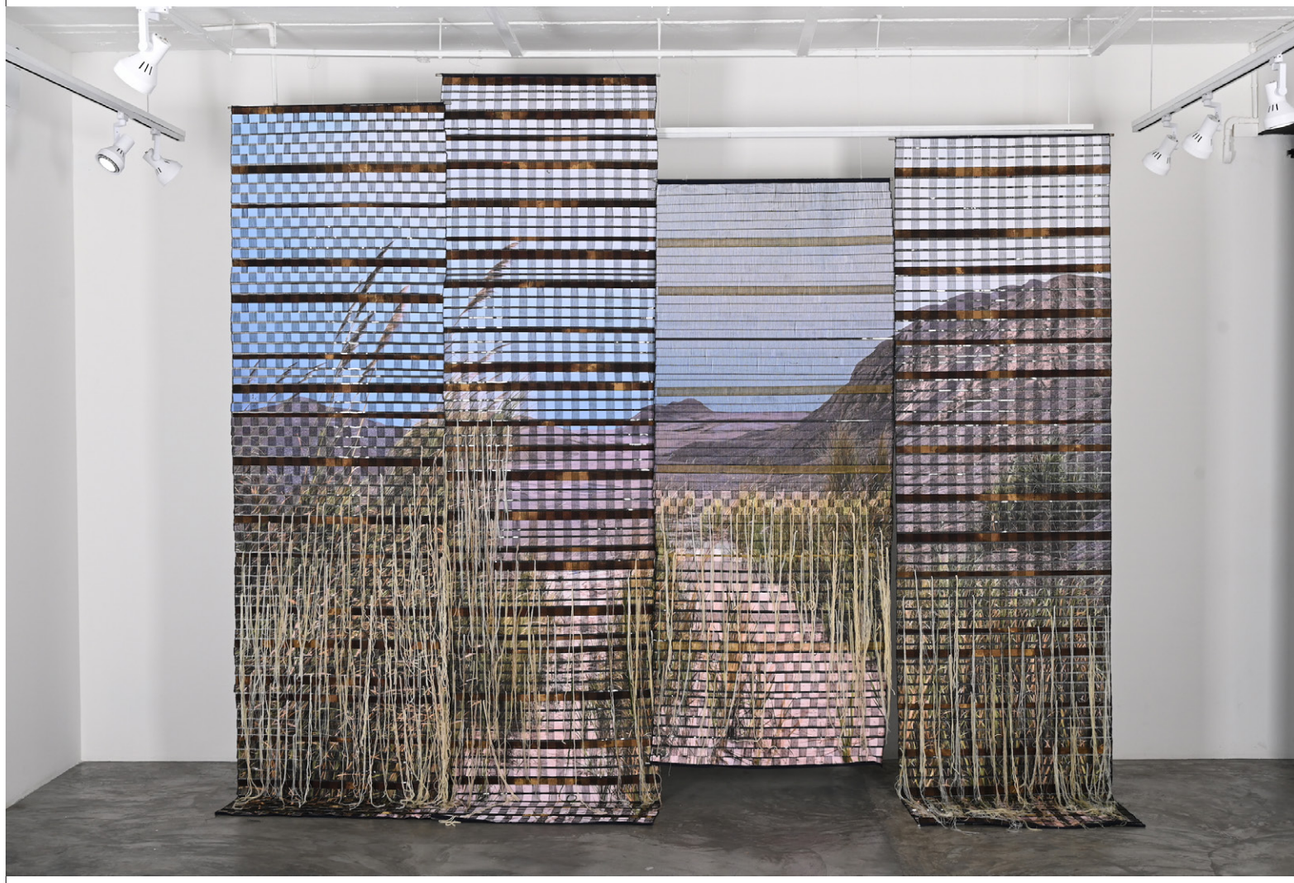
Jarupatcha Achavasmit & Sakarin Krue-On

짜루파차 아차와싸밋 & 싸카린 크르언

Mutation

2023, Photography on canvas, recycled PETyarn, 100% copper band, and copper powder

90 x 330cm, 90 x 352cm, 100 x 250cm and 90 x 335cm (total 4 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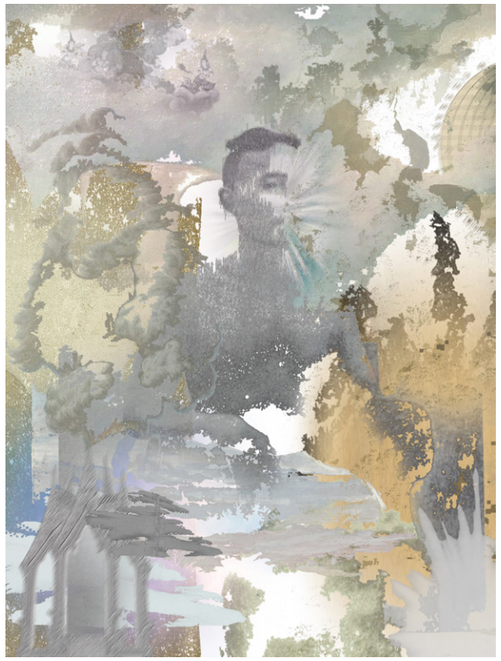


Nakrob Moonmanas

낙롭 문마낫

Winged Victory of Sukhuthai
2025, Giclee print on paper, 50 x 35cm

Venus of Srivijaya
2025, Giclee print on paper, 74 x 48cm



PhotoAlchemy01
2020, Giclee Print on Paper, 60 x 45cm

PhotoAlchemy02
2020, Giclee Print on Paper, 60 x 45cm

Photo Alchemy 02 - Glass plate
2020, Collodion process on the glass plate, 12 x 16.4cm

A Unicorn in the Room
2024, Digital collage, gold leaf, giclée printon canvas
67.5 x 59.5 x 6cm

Sitvut Prabripoo

씻웃 쁘랍리뿌

Sea Sand Sun
2024, Colored mirror & oil on canvas, 80 x 180cm

Ice Land
2024, Colored mirror & oil on canvas, 100 x 120cm

Lotus and his family
2024, Colored mirror & oil on canvas, 140 x 200cm

Take it easy
2023, Colored mirror & oil on canvas, 120 x 75cm

Kusofiyah Nibuesa

꾸써피야 니브싸

On Her Bicycle
2020, Printmaking and paper assemblage, 35 x 80cm

Moh-Ji
2017, Printmaking and paper assemblage, 139 x 105cm

The Second of April 4/7
2020, Printmaking and paper assemblage, 42 x 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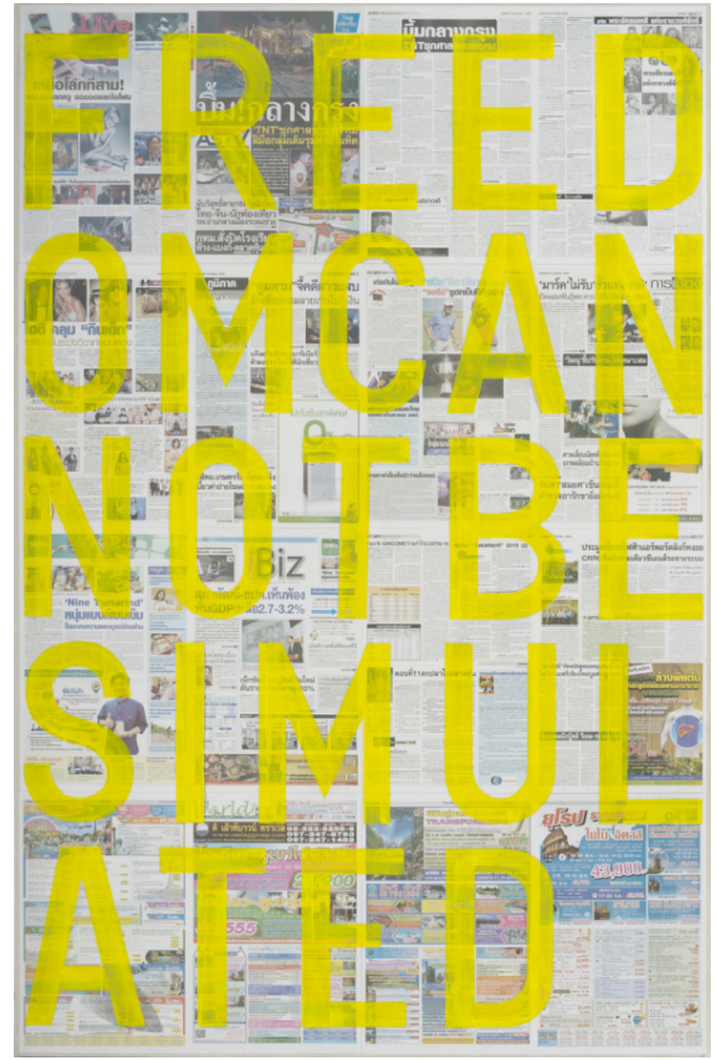
The Second of April 6/7
2020, Printmaking and paper assemblage, 42 x 40cm

Campus Vibe
2024, Printmaking and paper assemblage, 213 x 245cm

Rirkrit Tiravanija

러끄릿 띠라와닛

Untitled (Freedom Can Not BeSimulated, Thairath)
2016, Oil on newspaperon linen, 144 x 21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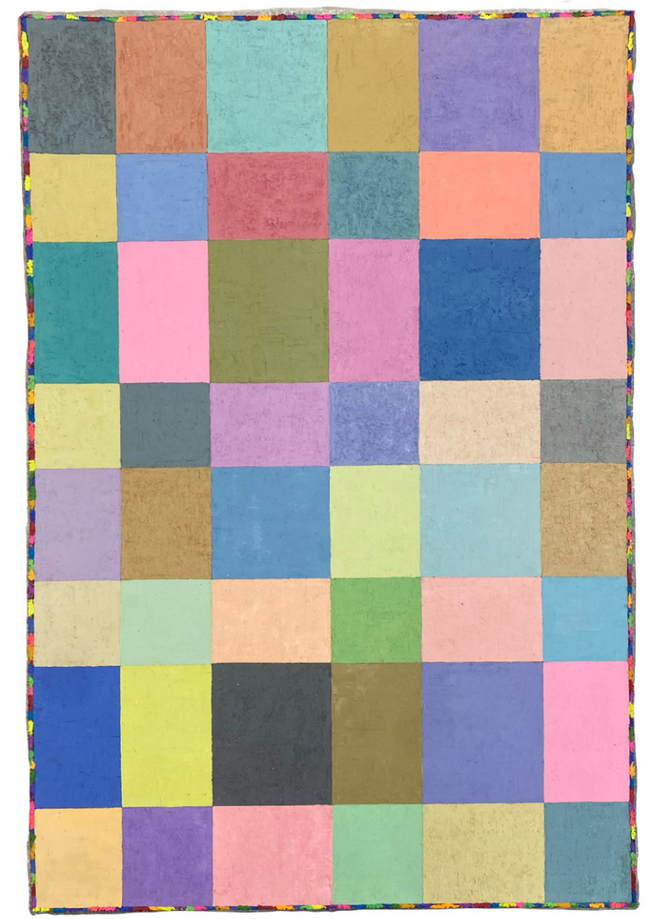
Untitled (Freedom Can Not BeSimulated, ASTV)
2016, Oil on newspaperon linen, 144 x 219.5cm

Untitled 2021 (Do we dream underthe same sky)
2021, Silk screen on newspaper, 69,3 x 64,3cm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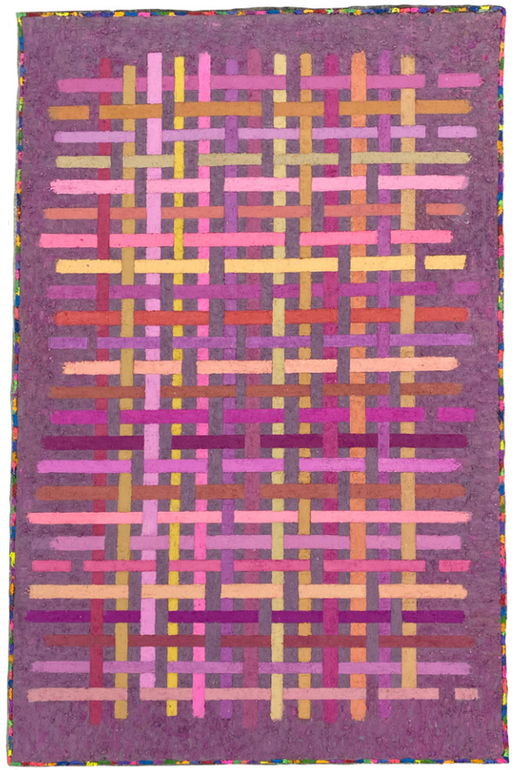
Mit Jai I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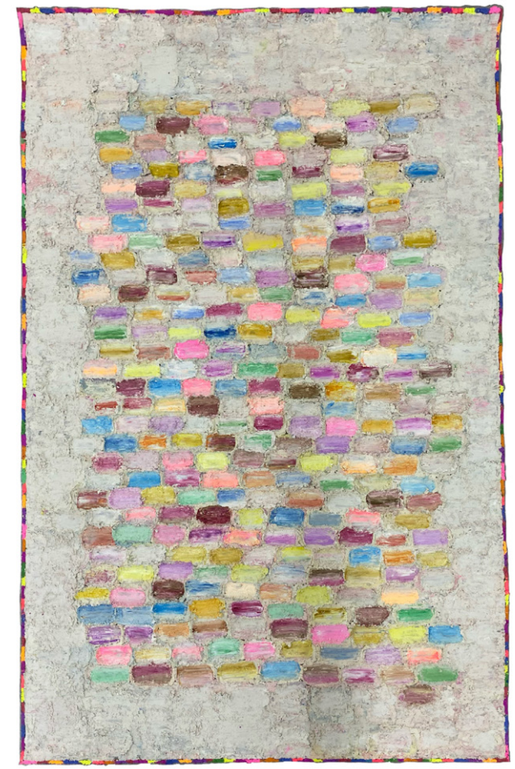
밋 짜이 인

Untitled
2024, Oil on canvas, 100x157cm



Untitled
2024, Oil on canvas, 100x157cm





Untitled
2024, Oil on canvas, 100x157cm (each)

Disorn Duangdao

디썬 두앙다오

A Piece of the Cosmic Explosionin Tim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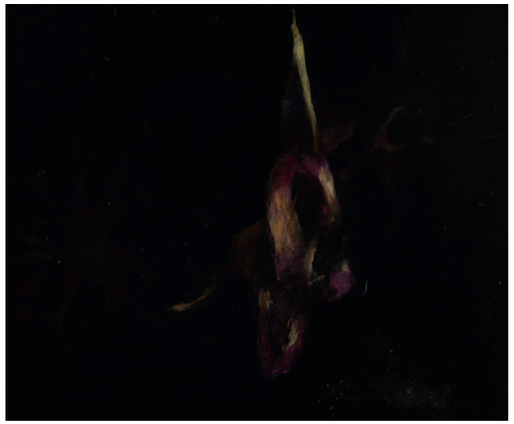
2025, Sea water, phosphorescent pigment,acrylic paint, UV protection nylon fabric

60 x 80cm (each panel) / 60x260cm (size intotal, including gaps)

Pattara Chanruechachai

팟타라 짠르아차차이

Repartition is the opposite of renewal
2025, Oil color on resin (23 layers), 30x25cm (each)



Repartition is the opposite of renewal

2025, Oil color on resin (23 layers), 30x25cm (each)

Thasnai Sethaseree

탓스나이 쎄타쎄리

Untitled (The Watchful)
2024, Paper collage on fabric, diameter 1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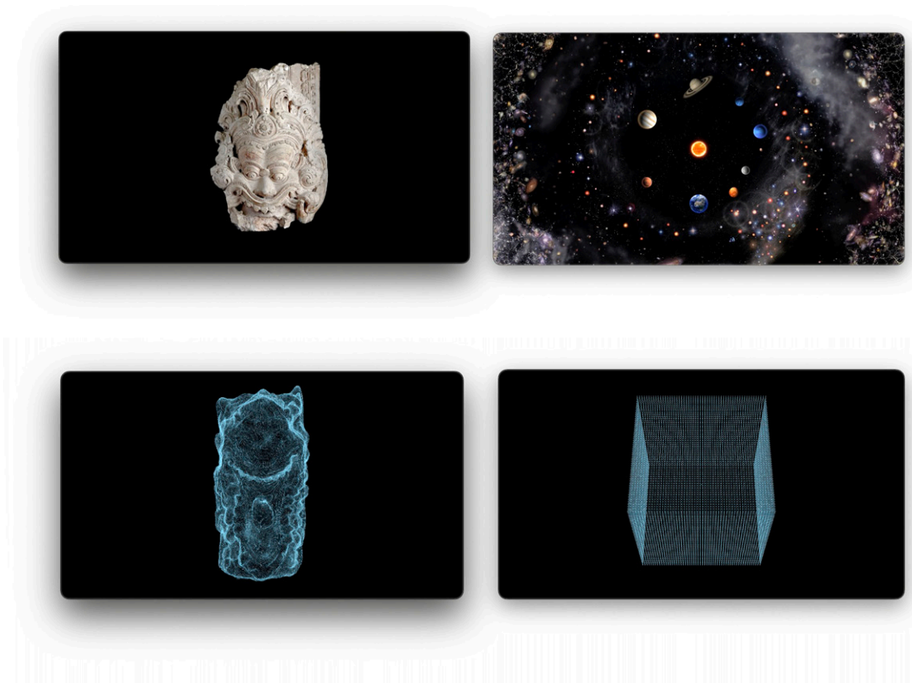
Untitled (The Watchful)
2024, Material: Paper collage on fabric, digital print, urethane, stainless steel 60 x 70cm (each)

Chitti Kasemkitvatana

찟띠 까쎔낏와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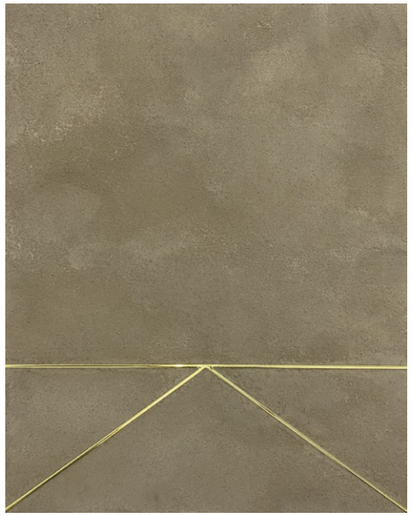
Kala Ensemble&Celestial Realms inRed(Seoul Edition)

2025, 2 Channels video, and Mixed media'tung' sculpture with Sappen red cotton threads, Variable size



Arin Rungjang

아린 룽쨍



We will leave and never return (bee pollen)
2025, Epoxy, Benzoin Powder, and Brass onplywood, 110x110cm

We will leave and never return (benzion powder)
2025, Epoxy, Benzoin Powder, and Brass onplywood, 90x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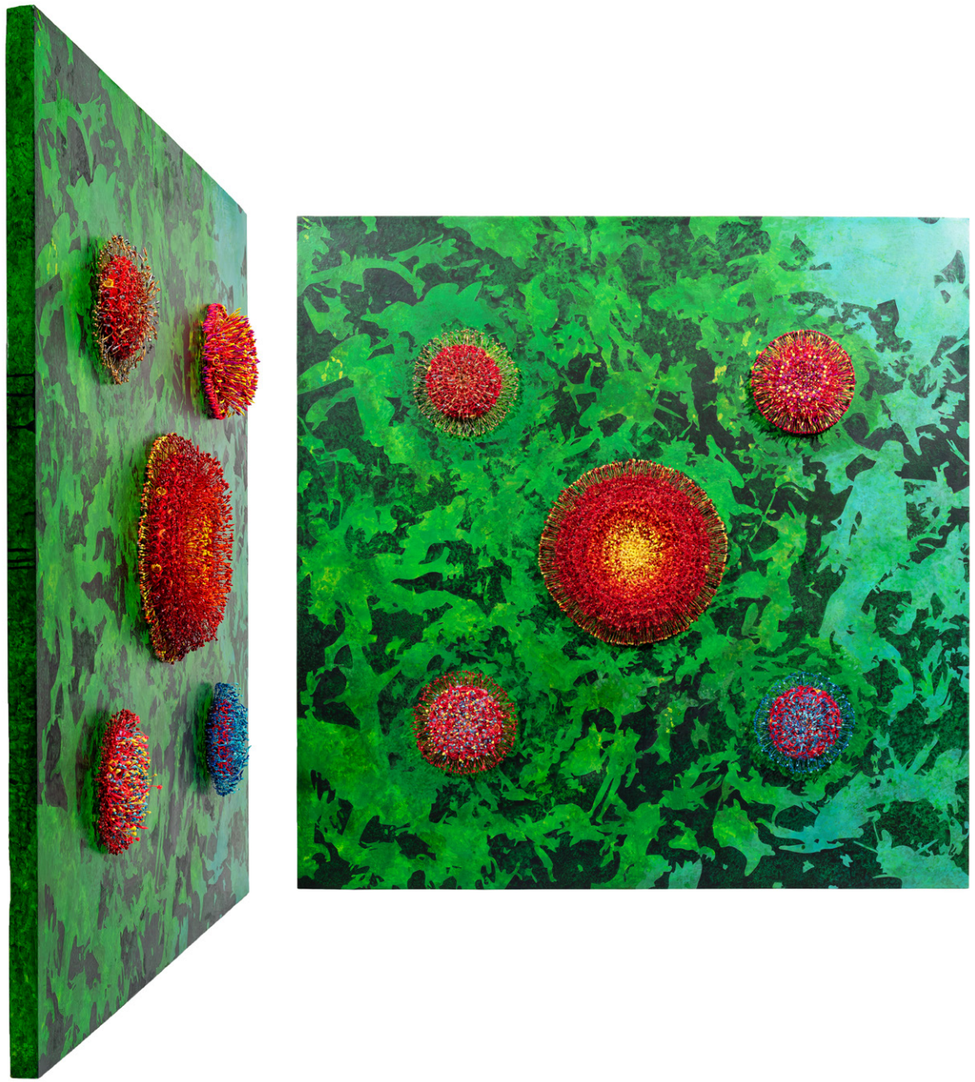
We will leave and never return (candle)
2022, White candle and brass pin on plywood, 120x120cm

Be Takerng Pattanopas

비 타끙 팟타노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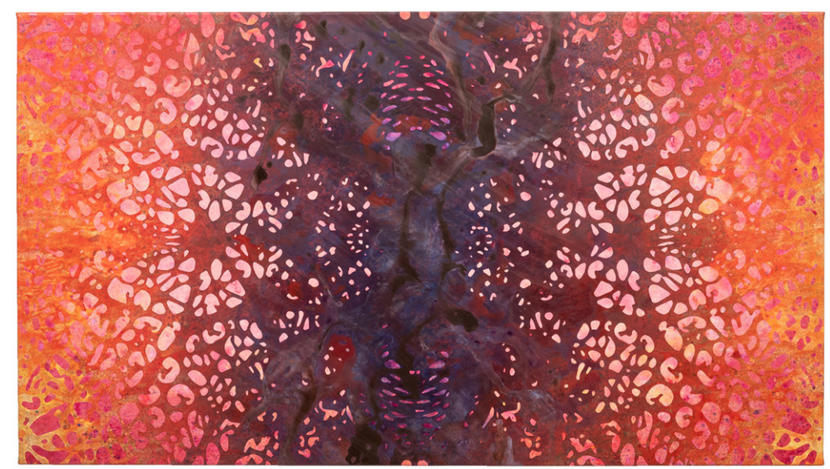
Within-without 2
2019, Painted steel, aluminium and copper, diameter 100cm

Within-without 3
2019, Painted steel, aluminium and copper, diameter 100cm



Not A Pretty Mandala
2025, AI-generated paint resist, acrylic, and watercolour on strengthened wooden board, oil paint in mixed media sculptural elements, and augmented reality (AR) (animation and music) 160 x 160 x 16,5cm

The Cosmic Superstructure the JWSTor the Hubble Could Never Be Able to Capture
2025, AI-generated paint resist, acrylic, watercolour, and darker-than-Anish-Kapoor's-Vantablack ink on canvas, 90 x 160cm



What Oppenheimer Looked at,but Could Not See
2025, AI-generated paint resist, acrylic, and watercolour on canvas, 90 x 160cm

Ruangsak Anuwatwimon

르앙삭 아누왓위몬

The Envoy 01

2025, Acrylic, permanent pen(ink), Pastel pencil on canvas, 300 x 200 x 4.5cm

Udomsak Krisan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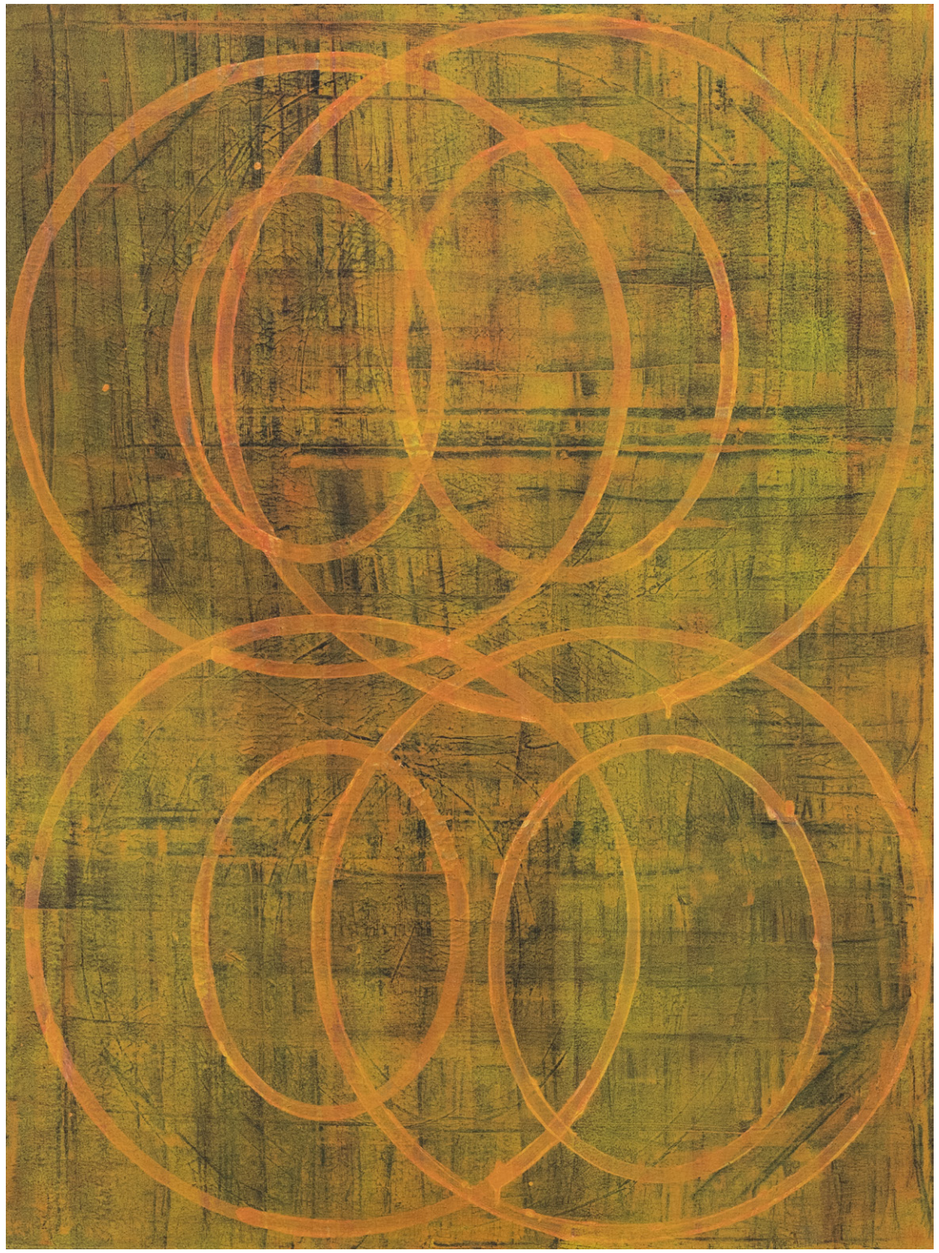
우돔삭 끄릿싸나밋

Untitled

2022, Mixed media on canvas, 185 x 115 x 4cm

I fall In Love too easily

2016, Mixed media on matt, 116 x 186 x 5.5cm



Velvet Space Time
2016, Mixed media on canvas, 89 x 120 x 3,6cm

Cousin Jane
2016, Mixed media on canvas, 120 x 89 x 3,6cm

2025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태국 현대미술: 꿈과 사유》

2025. 4. 5.~4. 2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2 전시실

전시 감독
박일호

진행
명정, 유선욱

홍보
이앤아트

전시 디자인
티비디 프로젝트

전시그래픽 디자인
에이오 그래픽스

전시장 조성
디오션

작품 운송 · 설치
주식회사 동부아트

작품 상태 조사
에이엔에이(A&A)보존

영문 번역
김혜영

도록 디자인 및 제작
DB Communication

발행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 610호

발행인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발행일
2025년 4월

2025 Hansae 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Contemporary Art of Thailand: Dream and Reflection》

2025. 4. 5.~4. 20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Exhibition Halls 1 & 2

Art Director
Ilho Park

Coordination
Jeong Myoung, Seoun Uk You

PR Communications
ENART

Exhibition Design
TBD project

Exhibition Graphic Design
ao graphics

Construction
THEOCEAN

Art Shipping · Installation
Dongbu Art Co., Ltd

Condition check
A&A Conservation

Translation
Hye Yeong Kim

Catalogue Design
DB Communication

Published by
Hansae Yes24 Foundation
#610, 3, Eunhaeng-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Publisher
Soomi Baek, Chairperson, Hansae Yes24 Foundation

Publication Date
April 2025

주최 Presented by

HANSAE YES24 FOUNDATION

후원 Supported by

주한태국대사관 HANSAE 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yes24 HANSAE MK 동아출판

표지그림 Cover Artwork

Rirkrit Tiravanija, Untitled (Freedom Can Not Be Simulated, Thairath) ⓒ Rirkrit Tiravanija

ⓒ 이 책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과 각 저작권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The copyright of this book and images belongs to the Hansae Yes24 Foundation and the respective copyright holders. This book is a copyrighted work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unauthorized reproduction or duplication is prohibited.

MCANN OTBEST MULATI ND

2025 Hansae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HANSAE YES24
FOUNDATION